

메시지 4

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함

(2)

신성한 종(種)의 영역인 하나님의 왕국 안에 삶

성경: 요 3:3, 5-6, 1:12-13, 벰후 1:4, 요일 3:1, 2:6

I. 하나님의 왕국은 신성한 통치의 영역일 뿐 아니라 신성한 모든 것들이 있는 신성한 종(種)의 영역이다 — 요 3:3, 5, 18:36.

- A. 요한복음 3장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다스림보다는 더욱 하나님의 종(種)을 가리킨다.
- B. 하나님은 사람의 종(種)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,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한 종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된다 — 요 1:1, 12-14, 벰후 1:4.
- C. 신성한 영역, 곧 신성한 종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려면,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서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을 가져야 한다 — 요 1:12-13, 3:3, 5-6, 15, 벰후 1:4.
 - 1. 하나님은 사람을 사람의 종류에 따라서가 아니라,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하시어 사람이 하나님의 종류, 곧 하나님의 종(種)이 되게 하셨다 — 창 1:26.
 - 2. 믿는 이들은 거듭남으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이들이며, 아담보다 더 하나님의 종류에 속한다 — 요 1:12-13.
 - a.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신성한 생명의 실재를 갖고 있으며, 우리의 전 존재가 변화되어 주님과 같은 형상을 이루고 있다 — 고후 3:18, 롬 12:2, 8:29.
 - b. 우리는 두 번째 출생인 거듭남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— 요 3:3, 5-6.
- D. 단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큰 기쁨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. 우리는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들이자 우리가 신성한 종에 속한 하나님-사람들,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— 엠 1:5, 요일 3:1, 요 3:15, 벰후 1:4.
- E.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종에 속한 하나님-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-사람의 생활의 시작이다 — 요일 3:1, 2:6.

II. 욥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선한 사람이 하나님-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— 욥 1:1, 8, 42:1-6.

- A. 욥은 선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정직한 자신을 표현했다 — 욥 27:5, 31:6, 32:1.
 - 1. 욥은 긍정적인 면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했고, 부정적인 면으로는 악에서 떠났다 — 욥 1:1.
 - a. 하나님은 사람이 단지 그분을 경외하고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. 그보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분을 표현하도록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창조하셨다 — 창 1:26.
 - b.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높다.
 - 2. 욥 안에는 하나님이 없었다.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나님을 얻기를 원하셨다 — 욥 42:5-6.

- B. 하나님의 의도는 옴이 하나님-사람이 되어, 여러 속성들을 가지신 하나님을 표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— 옴 22:24-25, 38:1-3.
1. 하나님은 옴을 또 다른 영역, 곧 하나님의 영역 안으로 이끄시어, 온전함과 의와 정직함의 방면에서 옴 자신이 성취한 것 대신 하나님을 얻도록 하셨다 — 옴 42:5-6.
 2. 옴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옴을 소모시키고, 온전함과 올바름에 관한 최고 수준의 윤리 면에서 그가 도달하고 성취한 것을 벗겨 내는 것이었다 — 옴 31:6.
 3. 하나님의 의도는 옴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로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,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하나님의 충만이 되게 하시게 하는 것이었다 — 딤후전 6:11, 딤후 3:17.
 4. 하나님께서 옴을 소모시키시어 허무신 목적은, 하나님 자신으로 그를 재건축할 수 있는 기반과 길을 얻으심으로, 그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-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— 엡 3:16-21.

III.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람 안으로 조성되시고 사람은 하나님 안으로 조성됨으로,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연합되어 한 실체가 되었는데, 이 실체를 하나님-사람이라고 부른다 — 마 1:21, 23, 눅 1:35, 딤후 2:13, 딤후전 2:5.

- A. 신약은 그 시작에서 하나님-사람에 대해 말한다. 오늘날 이 하나님-사람께서 재생산되시어 하나님-사람들이 되셨다 — 요 12:24, 롬 1:3-4, 8:29.
- B. 하나님-사람들, 곧 하나님의 아들들은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이신 그리스도의 복사관이자 연속이다 — 요 12:24, 히 2:10, 롬 8:29.
- C. 하나님-사람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에 동참하여,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이다 — 요 1:12-13, 3:15, 벰후 1:4, 고전 6:17.
- D. 하나님-사람은 하나님으로 조성되어, 하나님을 그의 생명과 모든 것으로 소유한다. 하나님-사람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지만 사람이다 — 엡 3:16-17상.
- E. 그리스도의 인간 생활은 사람이 하나님을 살면서 인간 미덕들로 하나님의 속성들을 표현하는 것이었다. 그분의 인간 미덕들은 신성한 속성들로 채워지고 연합되고 적셔졌다 — 눅 1:26-35, 7:11-17, 10:25-37, 19:1-10.
- F. 첫 번째 하나님-사람의 재생산과 복사관인 우리는 그분께서 사셨던 것과 똑같은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한다 — 요일 2:6.
 1. 주님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은 우리의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위한 본을 세웠는데,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하나님을 사는 것이다 — 갈 2:20.
 2. 우리는 반드시 자신을 부인하고,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, 그분의 영의 넘치는 공급에 의해 그분을 확대해야 한다 — 마 16:24, 빌 3:10, 1:10-21상.
 3. 하나님-사람의 생활을 하신 그분은 이제 우리 안에 또 우리를 통해 살고 계신 그 영이시다. 우리는 반드시 자기 계발과 자신의 타고난 사람을 건축하는 것을 거절해야 하고, 그분 외의 어떤 것도 우리를 채우고 점유하도록 허락해서는 안 된다. 그럴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분의 몸인 교회 안에서 단체적으로 그분을 살고 표현할 수 있다 — 엡 3:16-19, 1:22-23.